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와 과제

김 주 관**

1. 들어가는 말
2.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
3.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남긴 과제
4. 새로운 대안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
5. 맺음말

* 이 글은 2010 인문주간 기획의 하나로 2010년 10월 8일 사진아카이브연구소에서 주관한 ‘지역 아카이브, 민중 스스로의 기억과 삶을 말한다’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양교육원 강의초빙교수
주요 논저 :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제2호, 2005 ;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호 제2호, 2006.

[국문초록]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현지 조사에 기반하여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지향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브한다. 셋째, 아카이브에 접근성을 확보한다. 넷째, 아카이빙된 자료를 다양한 층위에서 활용한다.

특히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인류학이나 사회사 등과 같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의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일반에 대한 논의마저도 일반적으로 확산되기도 전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구축의 전형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방적인 아카이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2002년 7월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연구자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빙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7권의 한국민중구술열전시리즈를 출간하였다. 또한 아카이빙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섯 번에 걸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결과물 역시 다섯 권의 사진집으로 출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결과물들은 아카이빙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생활사 아카이브의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한 선도적인 지위로 인해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평가나 이를 바탕으로 생활사 아카이브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 혹은 비판적 성찰도 없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체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작업을 계승하여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가 창립되었지만 이전만큼 활발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긴 문제는 자료 수집과 관련된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원)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미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와 위로부터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즉 자료수집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제보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원자료의 보관 및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록물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아카이브 관행을 벗어나 지방분권적인 아카이브의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록의 민주화와 함께 기록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작업이 될 것이다.

주제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생활사, 공동체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지방분권적 아카이브

1. 들어가는 말

“거대한 변환의 시대인 20세기를 살아왔으면서도 역사를 남기지 못한 한국 민중들의 생활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작지 않은 시도”를 표방하고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인류학이나 사회사 등과 같은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의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생활사와 관련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일반에 대한 논의마저도 일반적으로 확산되기도 전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구축의 전형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방적인 아카이브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2002년 7월 출범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연구자들이 직접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빙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7권의 한국민중구술열전시리즈를 출간하였다. 또한 아카이빙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섯 번에 걸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결과물 역시 다섯권의 사진집으로 출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결과물들은 아카이빙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생활사 아카이브의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한 선도적인 지위로 인해 일정 부분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평가나 이를 바탕으로 생활사 아카이브가 궁극적으로 어떠

한 형식과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 혹은 비판적 성찰도 없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체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작업을 계승하여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가 창립되었지만 이전만큼 활발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에 참여하여 아카이브 구축에 관여 하였던 입장에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가 쌓아 온 성과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가 남겨 둔 과제, 즉 생활사 아카이브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에 대한 성찰적 비판을 바탕으로 작게는 생활사 아카이브의 방향성과 보다 넓게는 기존의 제도화된 아카이브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카이브 운동, 또는 아카이브 실천을 제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다.

2.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성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2002년 7월 한국학술진흥재단(현재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출범되었다. 1기는 2005년 7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되었고, 2기는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후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외부의 연구비 지원 없이 운영되는 학회의 형식으로 전환되어, 2009년 8월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는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애초에 표방하였던 목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며, 민중생활사에 관심을 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수용하면서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출범하면서 제시하였던 목표는 학술진흥

재단에 제출하였던 연구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그 내용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민중생활사 아카이브 구축과 이를 이용한 생활사 연구 기존 학문의 경계를 허문 인문학계의 연구진 1백명 외에 문학 예술계의 고문, 영상기록 전문가, 그리고 국외 학자들의 참여로 진행될 이 작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목표는 20세기 민중 생활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문자와 음향 영상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해 내는 일이다. 전체 연구진은 한국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현지조사하면서 우선 사라질 운명에 있는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생애사를 받아내고 현대 생활의 물증을 기록해야한다. 또한 일부의 연구진은 이러한 현지 조사 작업과 더불어 문학작품이나 기록영화 극영화 자료를 탐색하여 여기서 자료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해석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민중 생활의 백년 세월을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브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도출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역사인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전시회 개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성과물의 공개가 이루어진다. 이 작업의 이차적 목표는 일차적 목표의 달성을 이용하여 각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주제 의식은 일차적 자료를 끌어내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서술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특정 계급의 특정 영역을 해석하는 데에 힘쓰는 대신에 민중 생활사를 새로운 한국 근현대사의 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각 주제를 설정함으로써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이차적 목표인 것이다. 이러한 2차 목표는 새로 구성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이 해석하는 각 주제의 논문들에서 달성되기 시작하며, 새 아카이브에 의한 인문학의 새로운 글쓰기로 일단 매듭지어질 것이다.”¹⁾

이러한 목표를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지조사에 기반하여 일차적인 자료 수집을 지향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아카이브한다. 셋째, 아카이브에 접근성을 확보한다. 넷째, 아카이빙된 자료를 다양한 층위에서 활용한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성과는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하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지조사에 기반한 일차적 자료의 수집이란 방법의 사용에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현지조사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현장조사 이다. 민중생활사는 책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직접 생활하는 현장으로 뛰어들어 구체적 대상을 일일이 찾아내고, 주민과 친밀관계(rapport)를 형성하여 그들에게 묻혀져 있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다.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한 현저한 근현대 사건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물건과 행위와 말, 그리고 기억 속에 묻어 있는 삶의 ‘방식들’에 접근코자 한다.”²⁾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수집하는 대상은 구술 생애사, 20세기 생활사의 물증(物證), 생활문서와 영화, 문학작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대상의 수집은 현지 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구술생애사의 경우 구술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지 조사가 필수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1)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 미발표 연구계획서, 2002, 1~2쪽.

2) http://www.minjung20.org/main/contents/contents_03.html#

없었다. 다른 자료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었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지 조사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즉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현지 조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일차적인 자료를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발굴된 이차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생산과 발굴에 일정 정도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련하여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자료의 수집에서 아카이브 구축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³⁾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자료의 수집 방법을 정하고, 디지털화하는 방식의 표준과 파일 형식의 표준을 설정하고, 메타데이터 형식의 표준을 설정하는 등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에 필요한 과정들과 요소들을 잘 조직화하고 있다. 기존의 자료를 아카이빙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여 아카이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조직이라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아카이빙 절차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갖는 데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비용의 문제와 이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표방하긴 하였으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 예컨대 서버 구축, 저장 공간 확보, 전용회선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는데

3) 이러한 과정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두 편의 논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20세기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제1호, 2005, 217~249쪽; 김주관,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제2호, 2006, 447~483쪽.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접근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부 자료의 경우 제보자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문제는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자료 수집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제보자와 저작권과 자료의 공개에 대한 협의를 미처 고려하지 못하여 자료의 공개에 대한 제보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제보자가 공개를 거부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반드시 제보자와 저작권에 대한 협의와 자료의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제보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정보 전체를 미공개로 하기보다는 제보자와 협의를 거쳐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만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를 하거나 완전히 비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시행착오로 빚어진 것으로 초기에 수집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해결된 문제이지만, 비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로 전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최우선의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즉 “앞으로는 본 연구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 및 후속 연구에서 수집될 자료들을 디지털아카이브로 완벽하게 구성하여서 웹상에서 학자, 학생,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될 것이다”⁴⁾라고 함으로써 기존의 아카이브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쌍방향의 정보교환과 자유로운 사용을 담보한 형태는 아니지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아카이브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이 아카이브(<http://www.minjung20.org/main/>)에는 현재 구술 음성 파일 1,114개, 사진 파일 10,741개, 동영상 파일 514개, 문서 파일 815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열

4) http://www.minjung20.org/main/contents/contents_03.html#

람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의 활용의 부분에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아카이빙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섯 번의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다섯 권의 사진집과 47권의 구술 생애사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아래의 <표 1>과 <표 2>는 사진집과 구술생애사 목록이다.

<표 1> 사진으로 기록한 이 시대 우리 이웃 (눈빛출판사)

출간연도	제목
2005	어제와 오늘 - 한국민중 80인의 사진첩
2007	어제와 오늘 2 - 한국민중 37인의 사진첩
2008	어제와 오늘 3 - 한국민중 42인의 사진첩
2007	윗마을의 두 아낙네 - 경북 예천 저우리 여인들
2007	서울 근교의 마지막 농사꾼들 - 경기도 광주의 두 마을

<표 2> 한국민중구술열전 시리즈 (눈빛출판사)

일련번호 (출간연도)	구술자	일련번호 (출간연도)	구술자
1(2006)	이두이 1925년12월25일생	25(2007)	김점칠 1935년 4월 1일생
2(2006)	김기승 1933년11월26일생	26(2007)	황태순 1935년 11월 21일생
3(2006)	안성만 1928년10월12일생	27(2007)	이일용 1936년 3월 24일생
4(2006)	박상규 1922년6월30일생	28(2007)	이호영 1936년 6월 13일생
5(2006)	성송자 1932년 5월 5일생	29(2008)	권영섭 1904년 2월 18일생
6(2006)	이기범 1933년6월1일생	30(2008)	박지선 1918년 9월 3일생
7(2006)	최채우 1929년5월19일생	31(2008)	서석화 1920년 2월 9일생
8(2006)	박남진 1922년 5월25일생	32(2008)	김숙중 1921년 4월 16일생
9(2006)	정원복 1923년 3월17일생	33(2008)	문대환 1921년 4월 20일생
10(2006)	박희춘 1933년 2월26일생	34(2008)	최대봉 1921년 12월 20일생
11(2006)	박현순 1945년10월23일생	35(2008)	나영래 1923년 2월 14일생

12(2006)	김종상 1939년5월11일생	36(2008)	김순현 1925년 2월 15일생
13(2006)	여기원 1933년 10월24일생	37(2008)	이종근 1925년 3월 23일생
14(2006)	임창봉 1935년 1월21일생	38(2008)	정해주 1926년 6월 9일생
15(2006)	최한채 1935년1월21일생	39(2008)	윤용호 1927년 11월 25일생
16(2007)	심재언 1921년 9월 13일생	40(2008)	조석장 1928년 6월 20일생
17(2007)	박민규 1922년 4월 20일생	41(2008)	유춘성 1929년 6월 9일생
18(2007)	서순례 1927년 1월 23일생	42(2008)	하봉연 1929년 6월 29일생
19(2007)	김기홍 1927년 3월 15일생	43(2008)	서한금 1929년 10월 25일생
20(2007)	나덕운 1929년 6월 6일생	44(2008)	전수원 1930년 1월 12일생
21(2007)	이종윤 1931년 7월 19일생	45(2008)	윤정희 1931년 1월 18일생
22(2007)	조풍도 1933년 9월 8일생	46(2008)	홍영수 1934년 5월 15일생
23(2007)	홍성두 1933년 10월 12일생	47(2011)	스기야마 토미 (杉山とみ) 1921년 7월 25일생
24(2007)	윤영국 1933년 10월 18일생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아카이브의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아카이브는 단순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제공하는 자료들이 연구단에 소속된 인력 이외의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방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나 생활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자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징후들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 바와 같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로 생활사 아카이브 지향하였다는 점, 현지조사에 기반한 자료 수집의 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으로 접근성을 담보할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3.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남긴 과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성과와 더불어 향후 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연구 대상 및 방법, 아카이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는 출범하면서 연구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 작업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인 20세기를 살아왔으면서도 역사를 남기지 못한 한국 민중들의 생활사를 재구성 하려는 시도의 작은 출발이다. 전통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겹쳐진 이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시대의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논쟁을 하다 보면 이 시대의 자취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급한 것은 당장에라도 민중 생활의 현장으로 들어가 지난 백년에 관한 사실발견적(事實發見的, heuristic)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경시되어온 가까운 옛날, 가까운 이웃, 가까운 생활영역에 대한 접근이다. 이러한 대상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일이 시급한 것은 이들에 대한 자료가 될 만한 것이 개발이라는 이름의 회오리 앞에 매일 매일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생활의 자취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들도 사라지고 있다. 이 시대의 자취를 설명하고 해석해 줄 사람

들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에 대한 조사 작업은 우리 학계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회의 시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작업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러한 작업의 당위성이 우리를 내몬 것이다.”⁵⁾

이처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는 급격히 사라져가는 한국 근현대 시기의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그 시기적인 문제, 즉 ‘가까운 과거’라는 시간적 위치 때문에 역사학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인류학의 연구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것들이다. 최근 들어 인류학이나 역사학에서 사회사, 미시사, 생활사, 지방사 등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자료들에 주목을 하게 되었지만, 연구 인력에 비해 이들 자료들이 소멸되어 가는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이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하여 5년 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대단한 것이지만, 모든 연구 인력들이 공감하였던 것처럼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많은 자료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연구자들만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처럼 기록이 시급한 자료들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효율적으로 기록으로 남길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중요한 작업은 구술 생애사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술 생애사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구자와 구술자가 구술 결과물을 교차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구술자를 선정하는 문제도 연구자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술자의 의사는 그리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즉 구술사 채록에 있어 사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

5) http://www.minjung20.org/main/contents/contents_03.html#

가, 구술자의 선택에 있어 그 기준은 무엇이며, 구술된 자료는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가 등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구술사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수집된 자료의 아카이빙과 관련하여서도 몇 가지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물증 자료의 보관의 문제이다. 다행히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수집한 물증 자료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단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집된 문서자료나 사진자료 등과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원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물증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빙 하였지만, 원자료의 보관은 물증 자료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긴 문제는 자료 수집과 관련된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원)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공간적이고 기술적인 미비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계 및 미비점에 대한 지적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활동 중일 때도 있었던 것이며,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로 전환되어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와 위로부터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즉 자료수집의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제보자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원자료의 보관 및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록물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아카이브 관행을

벗어나 지방분권적인 아카이브의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새로운 대안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료의 제공자들이 주체가 되어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형식을 필자는 제안한 바 있다.⁶⁾ 이 제안은 최근 들어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⁷⁾를 염두에 두고 하였던 것인데, 이는 앞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속도가 자료가 소멸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6) 김주관, 「민속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33~52쪽.

7) 여기서 공동체라 함은 지역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유대인 공동체와 같이 인종에 기초한 공동체나 동성 및 양성애자 공동체와 같이 성향에 기초한 공동체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마을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경우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지역성에 기초하지 않은 공동체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의미로 마을 아카이브가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주 한정적인 용법이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엄수진·박소연,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본 마을 단위 문화 유산 기록화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Andrew Flinn, “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es* Vol. 28, No. 2, 2007, pp. 151~176과 Andrew Flinn, Mary Stevens and Elizabeth Sherperd, “Whose Memories, Whose Archives?: Independent Archives, Autonomy and the Mainstream”, *Archival Science* Vol. 9, 2009, pp. 71~86. 그리고 Andrew Flinn,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nd Community-Generated Content”, *Convergence* Vol. 16, No. 1, 2010, pp. 39~51을 참조할 것.

우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오랜 아카이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개발 집단(Community Archives Development Group, CADG)’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가 시작된 것은 1960~70년대에 일었던 지방사에 대한 관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1980~90년대 지방의 산업이 붕괴하면서 많은 지역 공동체들이 와해될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성원들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정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성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⁸⁾ 현재 영국에는 작게는 1,000여 개에서 많게는 3,000여 개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⁹⁾

영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입수 가능한 문서, 사진, 구술사, 그리고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여타 자료들을 수집”¹⁰⁾하여 공동체 내적으로는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해당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하며, 외적으로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다 넓은 외부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영국 전체에 약 30,000명의 인원이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마넷(Commanet)이라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시작했던 킬렌(Patsy Cullen)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갖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8) CADG, “Th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Summary of Independent Research” Unpublished Draft, 2007.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category_id_61_path_0p6p63p.aspx. 이 집단은 현재는 “공동체 아카이브와 유산 집단(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으로 바뀌어 계속되고 있다.

9)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는 Inge Bundsgaard and Michael H. Gelting, “What To Be or Not To Be? Evolving Identities for State and Grassroots Archives in Denmark”, *American Archivist* Vol. 55, 1992, pp. 46~57가 있다.

10)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Our Vision”, 2008.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documents/CAHG_Vision_.doc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 발전, 문화적 정체성, 부흥, 평생 학습, 추억, 세대 간 대화, 정보통신 기술의 훈련 등과 관련된 목표들을 충족시킨다. 공동체에 돌아오는 혜택은 사회적, 문화적, 창조적, 후생적, 경제적인 것들로 확인되었다.”¹¹⁾

즉 공동체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에 채워질 내용의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이끌고 있으며, 중앙 집중적인 형식이 아니라 지역 중심적인 아카이브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이미 20세기 초부터 생활사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었으며, 1971년부터 정부지원 하에 향토사자료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현립 자료관이 약 20여 개, 시나 군, 정, 촌립 자료관은 약 400여 개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일본에서 이러한 자료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중앙 정부의 문화청이 주축이 되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사와 지역문화의 전승 주체인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보존·관리된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1990년부터 전국에 산재해있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지역성에 기초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되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 시작되었다.¹³⁾ 공동체 아카이브이라 이름붙일 만한 형태로 아

11) <http://www.nationalarchives.gov.uk/partnerprojects/caap/documents.htm>

12) 임장혁, 「일본의 생활사자료 체계화와 아카이브 구축」, 『영남학』 제14호, 2008, 129~162쪽.

13) 이러한 방향의 논의로는 광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제18호, 2008 ; 이영남, 「공동체아카이브,

카이브의 구축을 시작한 것은 한국토지공사였다. 한국토지공사는 1997년부터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 사라지는 지역의 모습과 주민들의 삶의 자취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려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2006년 최초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고향전시관’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에는 대구 혁신도시 건설로 사라지는 마을에 대한 ‘대구혁신도시 사이버 고향전시관’을, 2009년에는 인천시 영종도를 대상으로 한 ‘영종하늘도시 사이버 고향전시관’과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 건설로 사라질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아카이브 등을 구축하였다.¹⁴⁾

하지만 이 아카이브들은 사라질 마을의 당시 모습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려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일회적이라는 점, 그리고 아카이빙 주체 또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라고 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다 자생적인, 그리고 앞서 제시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과 합당한 시도들은 성미산 마을 아카이브를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몇몇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 양림동의 사례나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사례는 공동체 아카이브로 발전 가능한 작업들로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현재의 기획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국내 최초의 공동체 아카이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형태의 아카이브를 제시하는 것은 앞서 제기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가 남긴 과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나아가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31호, 2012 등이 있다.

14) 2010년 10월 현재 열람이 가능한 곳은 김천 사이버고향전시관 (http://tm.gc.go.kr/h_pavilion/), 전주완주 사이버고향전시관 (<http://innocity.jeonbuk.go.kr/pavilion/>), 영종 사이버고향전시관 (<http://yeongjong.lh.or.kr/>), 양주 신도시 옥정 사이버고향전시관 (<http://okjeong.lh.or.kr/hometown/>), 별내 사이버고향전시관 (http://byulnae.lplus.or.kr/NCyber/menu_00_1.asp) 등이 있다.

지역사의 기록과 보존, 그리고 민속지식(folk knowledge) 또는 지역지식(local knowledge)을 축적하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결과적으로 ‘기록의 민주화’¹⁵⁾를 담보하는 실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있어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⁶⁾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데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는 아카이빙 지식을 가진 연구자와 공동체 성원 간의 공동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 중심의 선택이 갖는 편향성과 해당 공동체의 성원이 갖는 기억의 불완전성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경우 현지조사에 기반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는 하였지만, 구술자의 선정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몫이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생각하는 중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¹⁷⁾ 연구자와 제보자 간의 협력은 공동체에 있어서 어떠한 사안이 기록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연구자와 제보자가 조율을 통해

15) 박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16) CADG의 보고서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만들어 내는 영향력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영향으로 문화 자본의 축적을 들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보다 살만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네 번째로는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전시나 행사를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기술의 습득, 아카이브와 역사의 지위 상승, 공동체의 단합,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부심 함양, 노인들에 대한 가치 인식, 역사에 대한 학습 등도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들로 지적하고 있다. CADG, *op. cit.*

17) 이러한 한계는 민족지적 방법론이나 구술사 방법론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지만, 아래에 인용한 것은 신문에 실린 기사로 이를 통해 쉽게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학자들은 다양한 시각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도 자연히 우호적인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 민족지는 자세한 사실과 느낌을 풍부하게 제공하지만, 민족지들이 갖는 일화적인 부분들은 무작위적이고 통제된 조사로 보충되어야 한다.” Stephanie Simon, “The Study of Us” St. Paul Pioneer Press, October 29, 2009, p. 6A.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록은 공동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기록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아카이브는 단지 사용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내용이 사용자들의 이용에 적합성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선택성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¹⁸⁾ 이러한 선택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연구자와 제보자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다양한 제보자들의 제보를 통해 교차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실제 아카이브 구축 및 운용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에 있어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공동체의 아카이브 담당자들에게 기본적인 기술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아카이브 기획에 관여하는 모든 성원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기획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카이브 활동가(activist archivist)’가 되어야 한다. CADG 보고서는 “열정(enthusiasm)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생명선”¹⁹⁾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플린은 “공동체 역사 또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유산을 문서화하고 기록하고 발굴하는 민초들의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에 있어 기획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와 통제, 그리고 소유권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활동이 공식적인 유산 관련 조직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추동력과 방향성은 공동체 자체의 내부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²⁰⁾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

18) CADG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하나의 지역 아카이브 당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100명에서 500명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카이브가 유지되려면 온라인 사용자를 포함하여 평균 250여 명의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ADG. *op. cit.*

19) CADG, *op. cit.*

20) Flinn, *op. cit.*, p. 153.

이 중요한 것은 공동체 성원들의 주체적인 방향 설정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아카이브를 가지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역시 아카이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두 번째 유의할 사항은 궁극적으로는 지역 아카이브들을 횡적으로 연결시켜 상호 자료 검색이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카이브에 모아진 자료들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당사자들만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정보의 공유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공유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아직 느슨한 형태이긴 하지만 캠브리지셔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s Network)²¹⁾나 노포크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Norfolk Community Archives Network)²²⁾ 등과 같이 개별 공동체 아카이브를 연결하여 이들 아카이브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개별 아카이브를 횡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카이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형식의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서,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의 파일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메타데이터 형식은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표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표준화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동체 아카이브를 운용하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하여 표준화를 설정하거나, 또는 최근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기 시작한 국가기록원

21) <http://www.ccan.co.uk/>

22) <http://www.remembernorfolk.org/>

과 같은 기관에서 표준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로는 물리적인 공간의 확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리적 공간은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들을 보존할 장소를 말한다. 물론 자료의 보관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여하는 인력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디지털 자료를 보관하고 서비스하는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며, 나아가 공동체 단위에서 전시와 같은 행사도 가능한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대학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 새로운 전용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²³⁾ 지역에 있는 문화원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각각의 공동체가 처한 여건이 허락하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로 이러한 아카이브를 운용할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공동체 아카이브의 약 50%가 유산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며, 25%를 상회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들은 기부금에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다.²⁴⁾ 앞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비용의 문제가 아카이브 운용에 난점으로 지적된 바 있듯이, 공동체 아카이브가 지속성을 가지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지역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23) 정선영, 「생활사 아카이브의 건립 가능성과 역할」, 『영남학』 제14호, 2008, 163~198쪽.

24) 영국에서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5천 파운드 이하를 지원 받으며, 5개의 아카이브가 5천에서 5만 파운드 사이, 그리고 2개의 아카이브가 10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ADG, *op. cit.*

찾아야 할 것이다.²⁵⁾

5. 맺음말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는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 또는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의 저장소라고 말해지지만, 나아가 아카이브는 공동체 성원들의 정체성의 표현이어야 하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와해를 걱정하는 현재 단계에서 공동체의 건강성을 복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 전체 사회가 공유하게 될 정보와 지식의 민주화를 담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아카이브들은 역사를 가지지 못한 민중들, 또는 사회에서 주변화되거나 과소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민족지적이거나 역사적 서술들이 주로 주류에 편입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기술되는 편향성을 결과하였다. 이러한 편향성은 개별 인류학자나 역사학자의 편견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기록된 자료가 갖는 편향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²⁶⁾

여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 성원 스스로가 참여하여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에 따라 공동체의 유산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민중들의 활동이다.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누구를 위

25) 앞서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지는 혜택을 말했던 컬렌이 운용하던 Commanet도 현재 비용의 문제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26) Raphael Samuel, "Headington Quarry: Reading a Labouring Community", *Oral History* Vol. 4, 1978, pp. 119~120.

한, 누구의 역사가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존재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중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형성하게 될 다양한 집단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나 혼입여성들, 성적소수자 등과 같은 공동체들에까지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기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공동체 아카이브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에 참여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던 필자가 경험적으로 얻은 한계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기록학 연구자들에 의해 쓰여진 최근의 몇몇 논문에서 이와 유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직접 현장에서 서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구술사, 생활사, 지방사, 사회사 등의 연구자들이나 수집된 자료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록학 연구자들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와 같은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공동체 아카이브를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현실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민중생활사의 기록과 해석」, 미발표 연구계획서, 2002.
- 곽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호, 2011.
-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20세기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제1호, 2005.

- _____,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제2호, 2006.
- _____, 「민속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마을민속 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8.
- 엄수진·박소연,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서 본 마을 단위 문화 유산 기록화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
-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제 18호, 2008.
- _____,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31호, 2012.
- 임장혁, 「일본의 생활사자료 체계화와 아카이브 구축」, 『영남학』 제14호. 2008.
- Bundsgaard, Inge and Michael H. Gelting, “What To Be or Not To Be? Evolving Identities for State and Grassroots Archives in Denmark”, *American Archivist* Vol. 55, 1992.
- CADG, “The Impact of Community Archives: Summary of Independent Research” Unpublished Draft, 2007.
-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Our Vision”. 2008,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documents/CAHG_Vision_.doc
- Flinn, Andrew,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nd Community-Generated Content”, *Convergence* Vol. 16, No. 1, 2010.
- Flinn, Andrew, “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es* Vol. 28, No. 2, 2007.
- Flinn, Andrew, Mary Stevens and Elizabeth Sherperd, “Whose Memories,

Whose Archives?: Independent Archives, Autonomy and the Mainstream”, *Archival Science* Vol. 9, 2009.

Samuel, Raphael, “Headington Quarry: Reading a Labouring Community”, *Oral History* Vol. 4, 1978.

Simon, Stephanie, “The Study of Us”, *St. Paul Pioneer Press*, October 29, 2009.

ABSTRACT

A Proposal for Archives securing Community Memor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GPH Archives

Kim, Joo-Kwan

Group for the People without History(GPH) was launched at September 2002 and had worked for around five years with the following purposes; Firstly, GPH collects first-hand data on people's everyday lives based on fieldworks. Secondly, GPH constructs digital archives of the collected data. Thirdly, GPH guarantees the accessibility to the archives for people. And lastly, GPH promotes users to utilize the archived data for the various levels.

GPH has influenced on the construction of archives on everyday life history as well as the research areas such as anthropology and social history. What is important is that GPH tried to construct digital archives even before the awareness on archives was not widely spreaded in Korea other than formal sectors. Furthermore, the GPH archives proposed a model of open archives which encouraged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and utilization of the archives.

GPH also showed the ways in which archived data were used. It had published forty seven books of people's life histories and five photographic books, and held six photographic exhibitions on the basis of the archived data.

Though GPH archives had contributed to the ignition of the discussions

on archives in various areas as leading civilian archives, it has a few limitation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data are vanishing too fast for researchers to collect. It is impossible for researchers to collect the whole data. Secondly, the physical space and hardware for the data storage should be ensured.

One of the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works of GPH is to construct community archives. Community archives are decentralized archives run by people themselves to preserve their own voices and history. It will guarantee the democratization of archives.

Key words: Group for the People without History, everyday life history, community archives, digital archives, decentralized archives